

07 자유는 건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을 동반한다

• 왜 비싼 댓가를 치르고 획득한 ‘자유의 과실’을 맛본 근대인이 그것을 내던져 버리고 파시즘의 전체주의에 그토록 열광했을까? 프롬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에는 건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이 따른다. 이 고독과 책임을 감당하고 건디면서 더욱이 진정한 인간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끊임없이 갈구함으로써 비로소 인류에게 바람직한 사회가 탄생하는 법이다.

• 하지만 자유의 대가로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독과 책임의 무게에 몹시 지친 나머지 그들은 비싼 댓가를 치르고 손에 넣은 자유를 내던지고 나치의 전체주의를 택한다. 특히 나치즘을 지지하는 세력의 중심에 소장인, 장인, 사무직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하층민 및 중산 계급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프롬은 하층 및 중산계급 중에서 나치즘을 반기며 맞이한 이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쉬운 성격이며 자유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존과 종속을 추구하는 성향을 밝히고 이를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명명했다.

• 조직이나 커뮤니티에 속박되지 않고 더없이 자유로워지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개인의 자아와 교양의 강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직 자유가 들이미는 책임에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

• 자유가 들이미는 고독과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자신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정신력과 짓기를 갈고닦는 사람들을 곳곳이 키워 갈 수도 있다.